

Planning [4] special

'06년 미주지역 양돈산업 전망

- By ROD SMITH
번역 : 본회 업무팀

『Feedstuffs』에 따르면 '06년 미주지역 양돈 시장은 미국과 캐나다내 생산량 부족현상과 수출을 둘러싼 시장 상황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진 양상을 보일것이다. 생산량과 수출상황은 북미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와 전 세계적인 돼지고기 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난 25년이상 동안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업자에게는 수익성이 가장 긴 기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수출로 인한 부과세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고 소식지는 전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성이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인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06년과 2007년의 4분기에 대한 우

려를 표명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생산량을 확대하지 않고 오랫동안 수익성이 지속되는 것은 놀랄만하다고 캔자스시티 Kropf & Love Consulting Services에 근무하는 Joe Kropf는 말하지만, 그를 비롯한 다른 전문가들은 돼지고기의 생산량을 확대하지 않은채 미국 비육돈의 사육두수 그리고 현재 캐나다의 사육두수를 계속 유지하는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했다. 미국내에서 거세돈 생산은 자신들의 축사에 대해 수용능력을 조절하기 위해 새로운 축사를 짓거나 아니면 옛 건물을 개조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들에 대해 점점 더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St. Louis의 A.G. Edwards & Sons에



있는 Dan Vaught가 전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과 허용된 범위내의 제한사항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돈의 복합적인 성장(확장)에 대하여 시골 지역사회가 소위 "NIMBY - 지역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대립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Kropf는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는 새로운 농업의 동적인 면이긴 하지만, "명백히 공정해야 한다"며 양돈에서 가끔까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생산 시스템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the Daily Livestock Report를 쓰는 Steve Meyer 와 Len Steiner는 자금은 제한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비용이 폭등하기 때문에 시설(축사)을 확장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들은 이번년도 생산비용 대비 일인당 \$7/cwt만큼 건축비가 증가했다고 말하는 한 생산자의 말을 인용했다. Adel, Iowa에 있는 Paragon Economics에 근무하는 Meyer와 Manchester에 있는 Steiner Consulting Group in , N.H에 근무하는 Steiner는 미국 농무성의 조사가 시설확충에 대한 부분을 놓쳤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산업의 집중화된 모습들이 199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던 것만큼 빨리 변화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고, 미국 농무성의 오늘날 생산에 대한 방향은 예전보다 더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양돈산업의 생산량 증가는 제한되어 있다고 소식지는 전했다. 비록 서부지방에서 생산량이 증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쪽을 제외한 동부지방에 있어서의 성장은 일시적인 정지상태라고 an independent consultant in Edmund, Okla의 Bob Brown이 말했다. 따라서 서부지방에 있어서의 생산량의 증가는 동쪽지방의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인 것이다. New York에 있는 Credit Suisse First Boston에 있는 식품분석가 David Nelson은 2004년 미국에서 포유돈과 거세돈 사육자들에게 수출시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캐나다의 상황에는 (미국과는)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전했다. 비록 그들이 불법적인 요소들을 찾아서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산 돼지고기 생산업자들에게 소고기 생산업자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캐나다에서 돼지를 도축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기반 사실을 확충하는 것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인 수단' 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달(feedstuffs, oct.31)에 이슈가 된 캐나다-미국 거세돈 보고서를 보면 북미 시장상황은 북미 전체에서 캐나다 사육두수의 증가, 미국의 사육두수 감소는 극적인 상황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요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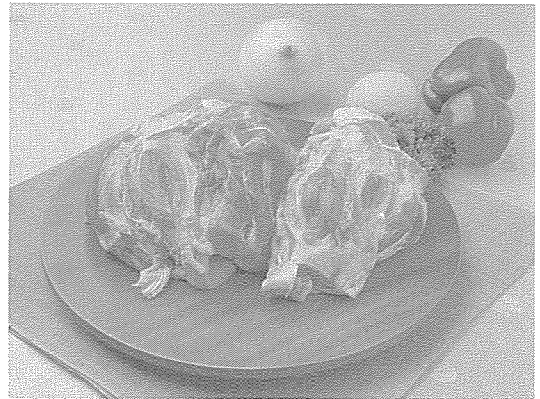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5년보다 2006년도에 거의 2%정도, 지난 4년간 보다 7.4% 더 성장할 것이다. Plain은 국내 수요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중에는 고단백/저탄수화물 식품, 돼지고기 공급량, 경쟁관계 있는 다른 고기들의 공급량과 소비자들

에게 높은 에너지가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홍보하는 등 그러한 요인들에 중점을 두지 않는 소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수출상황에 따라 수요의 축적이 이루어지며, 현 상황에서는 운이 좋게도 이러한 수출상황이 그다지 나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rimes와 다른 소식지들은 2003년보다 61%더 높아진 2006년도보다 1.3% 수출물량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2003년부터 많은 국가들이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광우병), 아시아산 가금류-조류독감으로 인해 도살된 후 판매되는 닭고기와 아시아산 가금류 등 - (현재는 구제역으로 인한 브라질산 쇠고기 등) 때문에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과 미국산 쇠고기를 대체하기 위해 수출되는 돼지고기의 성장률에 이의를 제기했다. Grimes는 돼지고기 수출의 증가가 북미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의 충격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많은 나라들이 육류소비율의 한축을 담당하는 쇠고기를 적게 소비하기도 하지만 돼지고기보다 쇠고기를 더 좋아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는 그것들의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 지역 쇠고기 수입재개는 돼지고기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Brown이 말했다. 쇠고기 무역은 매우 신중하게 다시 재개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일본이 요구하는 미국산 소의 사육군에 대한 매우 작은 부분까지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2006년도 시장상황은 긍정적이다. Grimes와 Plain은 2003년 1분기는 \$30이었던 것을 비교할 때, 2006년 4분기의 가격이 평균 \$35-38/cwt라고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성이 추측한 45\$과 비교하면 매년 평균가격은 \$41.43이었다.

Grimes가 말하는 위험성은 꾸준히 개선되는 생산성의 성장이다. 그는 2006년 도축 비율이 1년 전보다 0.2%더 커진 9월, 사육두수에 있어 2005년도 보다 1.1%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생산성이 매일 증가하는 것은 생산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돈사업은 '06년 후반기에 생산성 증가를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한 자금의 손실을 메우기에 충분하게 성장할 것이며, 이러한 우려는 북쪽이나 남쪽의 사육두수를 재조정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다. ☺

자료출처 : 「Feedstuffs」 11월 14일자